



육계 계열화사업 정착방안

김 홍 국 / (주)하림식품 대표

1. 머리말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에 의해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자극을 받은 많은 육계인들이 계열화(Integration)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으나, 그 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둔 업체는 한두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조만간에 닭고기 역시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계열화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고, 계열화만이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본고는 (주)하림식품의 계열화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과 정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주)하림식품의 계열화 현황

계열화란 생산에서 최종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단계를 개별경영에 의존시 발생하는 중간

이윤 및 비용을 배제하고 최종상품에 대해서만 일정 이윤을 부과,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생산자에게는 적정수의 보장과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닭고기를 공급해 주는 통합경영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주)하림식품은 이와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육계산업 역시 안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열화 정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4년전부터 계열화 사업에 착수, 현재 정착단계에 돌입했다.

(주)하림식품이 추진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현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림 1과 같이 (주)하림식품의 육계생산 체계는 계열주체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에 상호약정된 계약에 의거 계열주체측이 병아리, 사료, 약품, 연료 등을 통합공급해주고 생산된 육계전량을 인수, 도계, 가공처리를 통해 유통시킴으로써 안정된 생산활동을 보장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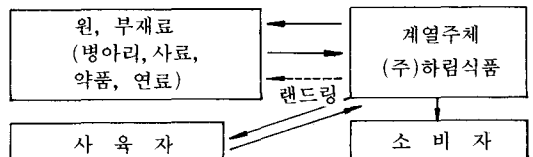


그림 1. 하림식품 계열화 체계

2) 계약사육농가현황은 86농가로 총 1백65만수 규모로 계획생산을 하고 있다.

3) 계약사육 농가별 사육규모는 1만수에서 2만수 이하 규모가 47.7%로 현 국내 여건하에서는 이 규모가 가장 적합하고 생산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계사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사육규모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표 1).

표 1. 계약농가 규모

구 분	1만수미만	1만수~2만수	2만수~3만수	3만수이상
농가수	8농가	41농가	15농가	22농가
비 율	9.3%	47.7%	17.4%	25.6%

4) (주)하림식품은 영세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마련, 질병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독, 사양관리지도 및 사양기술 전수 등 계약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도계장

도계장은 작업인원 150명이 1일(10시간 기준) 3만수 도계능력을 갖추고 있고 위생적인 도계처리, 가공 등 과정을 거쳐 신선육 64%, 가공육 36% 비율로 유통시키고 있다.

6) 유통소비 및 홍보활동

(주)하림식품은 위생적으로 도계처리, 가공과정을 거친 닭고기를 전국의 대리점 및 외식업체, 직영체인점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 유통소비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TV 광고 300회, 일간지, 월간지 등에 20회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닭고기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가격안정정책

(주)하림식품은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증의 하나인 산지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일반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자체자금을 동원, 88년도에 30만수를 비축했고, 89년에는 40만수 물량을 비축할 계획이다.

3. 계열화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기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호불황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육농장은 시세맞추기에만 급급, 생산성 향상을 도외시하고 있어 우리 육계생산비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현상향은 닭고기 수입도 언젠가는 개방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현상향은 여하이 상대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에 있고 업계 모두가 이를 위해 총 매진해야 하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현재 국내 육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수요와 생산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문제다.

육계수요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나 생산은 비교적 탄력적인 관계로 개별생산체계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없고 이에따라 가격형성은 언제나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육계생산비 문제이다.

각국의 육계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현재 kg당 900원, 일본 800원, 미국 530원, 태국 610원, 유럽이 680원선이다. 즉 한국 육계생산비는 미국의 1.7배에 달하고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내 육계생산비에서 병아리와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해 우선적으로 병아리, 사료부분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셋째, 육계산업의 각 관련부분이 개별경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육계산업은 생계사육, 도계가공, 유통소비부분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관련 부문간에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육계산업의 합리적인 경영

과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넷째, 현행 유통체제로는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다.

닭고기 유통부분은 유통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도매,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계열화 체계를 통해 생산단계에서 최대한 원가절감을 이룩한 다음 주체에서 상품화 계획, 마케팅 계획 등 일괄된 경영체제로 생산, 도매, 유통소비를 관장해야 각 부분의 합리화 및 소비촉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로서는 능동적인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수입개방시 경쟁력 상실 문제다.

닭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나, 현재 국내 여건은 낮은 생산성과 과도한 유통비용에 의해 오히려 타육류보다도 비싼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쇠고기수입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축협조사에 따르면 쇠고기수입 영향으로 쇠고기 소비는 증가된 반면에 닭고기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현 수준에는 닭고기 수입이 아니라도 타육류

수입에 따른 소비감소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닭고기 수입개방시 1차가공품이나 완제품이 들어 올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선호를 빼앗길 염려가 많아 결국 국내육계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생산기반 위축, 국내 소비시장 잠식 등 육계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같은 국내 육계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경쟁국과 싸움에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로는 계열화추진을 통한 노력 밖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국내 계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역시 적지 않은 실정이다.

1. 계열주체의 영세성에 의해 자가사료 및 자체 병아리 생산능력 미비로 외부구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품질저하 문제 등으로 사육농가의 불만이 자주 노출, 불신의 소지가 되고 있다.

2. 계약농가의 40%이상이 영세한 실정으로 계사 시설 노후 등의 요인에 의해 개축자금지원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이 자금을 계열주체에서 맡아야 할 형편으로 주체의 자금대여 한계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육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규모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조속한 계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육규모 확대와 육계사육을 부업차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육계사육이 부업형태이며 사육비가 kg 당 60원 이내에서도 대규모 사육에 의해 농축산업중 육계업 소득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3. 사육농가의 투기성과 시세의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자가사육과 계열사육을 병행하는 농가가 많아 안정된 입, 출하 관리가 어렵고 일정기간 동안만 사육농가와 계약하여 사육하는 위탁사육업자(의사계열화)의 출현으로 정상적인 계열업체마저 오인된 인식으로 사육농가의 불신벽이 두터워지고 있다.

4. 계열화사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업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

농축산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약해 현재 열악한 수준에 있고 그 결과 수입개방압력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농축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계열화사업 경우 보호육성만 하게 되면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으나 미국의 예를 보면 15년 전만 해도 80개 계열주체중 5개가 협동조합 주체로 20%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개(골드키스트) 업체만이 존재하며 시장점유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골든 폴투니사를 인수하면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 변신을 꾀하고 있다.

반면, 기업주체들 경우도 대부분이 기업을 공개하고 종업원 사주제, 계약 농장들에게도 경영에 참여시키는 등 협동조합과 기업의 중간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국내의 경우도 누가 주체를 할 것이냐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하이 사업을 잘 운영해 산업경쟁력을 갖추느냐에 관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도계장 시설 노후화문제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도계장 시설수준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위생계육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도계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대부분 도계장이 위탁도계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다 자금여력이 약해 어려운 입장이다.

6. 세계개선 및 지원문제로 현 국내 세제나 조직이 계열화체계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계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축산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약해 현재 열악한 수준에 있고 그 결과 수입개방압력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농축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계열화 사업 경우 보호육성만 하게 되면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계열화 정착시 기대효과

육계산업이 계열화 체제로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생산단계에서 육계품종개량 및 부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양 및 기술지도, 생산품(육계) 100%

판매, 소비 및 사육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생산공급, 사육에 관한 정보 및 사양기술지도, 농장의 올인, 아웃으로 질병감염 해소 등 효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게 된다.

다음 가공·유통 단계에서는 생산전량을 소비하도록 시장개척사업으로 위생적인 닭고기 판매활동과 신상품개발, 가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열생산시 기대되는 생산비절감 효과는 병아리 생산을 자체 종계장 및 부화장을 확보시 40%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사료는 자가배합사료 생산으로 판매 유통마진 배제 및 부산물 재활용 등으로 26% 절감효과, 그리고 약품 및 연료도 대량구매로 30% 원가절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와같은 체계를 갖출 경우 국내 kg 당 육계 생산비는 크게 낮아져 미국 530원에 비해서도 크게 뒤질게 없다.

이 경우 최대 닭고기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생산비가 800원에 달하고 있고 제반 여건상 더이상 생산비 절감은 곤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오히려 대일 닭고기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한편, 이 경우 (주)하림식품 계약농장 수익현황은 2만수 규모로 연 4회전 사육시 1천9백15만2천원에 달하고 있다. (잉여금 제외)

$20,000\text{수} \times 95\%(\text{육성율}) \times 1.8\text{kg}(\text{출하체중}) \times 4\text{회전} \times 140\text{원}(\text{사육수수료 인상예정}) = 19,152,000\text{원}$ 또 이리, 익산 등 인근 농촌지역 투자효과는 3백70명의 고용효과로 13억원(370명×월 300,000원×12월=1,332,000,000원)

사육농가 수익금이 57억원(19,152,000원×300농가=5,745,600,000원)등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계**